

하박국 3 장 16-19 절

16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17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19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1. 오늘 본문은 하박국 3 장에서 시작한 찬양을 마무리하며 하박국이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절망중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2. 16 절은 이제 하박국 1 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갈대아 사람들, 즉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해 올 것과 그로 인해 일어날 고난을 생각하며 하박국이 느끼는 아픔과 두려움 적고 있습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모습으로 그 두려움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16 절 끝부분에서 "그러나 나는"이라고 말하며 극도의 공포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한 자들을 멸하실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3. 17 절에 나오는 무화과, 포도,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작물입니다. 무화과 과일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포도는 마실 것을, 그리고 올리브는 기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 과수원지기가 잘 돌봐 주어야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오랜 평화와 번영을 뜻하는 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주님의 통치로 이루어질 우주적 평화에 대하여 미가 선지자는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서 약속하신 것이다" (미가 4:4)이라고 하였고, 스가랴 선지자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 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스가랴 3:10)이라고 하였습니다.
  -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정성스럽게 돌봐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돌보지 못하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덤불에 지나지 않게 되기에

전쟁의 황폐함을 묘사할 때도 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날에 대하여,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거둘 것을 내가 말끔히 거두어 치우리니, 포도덩굴에 포도송이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앞까지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 (예레미야 8:13)라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사용하여 표현했습니다.

4. 전쟁의 황폐와 고난의 그 때에는 그동안 누려 왔던 밭의 소산과 양과 소와 같은 가축도 빼앗기고 잃을 때임을 17 절 후반부에서 적고 있습니다.
5. 17 절에 묘사된 대로 기뻐할 이유가 없는 때에도 하박국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18 절에서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기에, 하박국은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단어는 다음 시편 구절에서 사용된 것처럼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 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시편 13 장 5 절).
  -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 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시편 16 장 11 절).
  -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31 장 7 절).
  -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시편 32 장 11 절).
6. 19 절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용기있게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산등성이를 힘차게 달려가는 사슴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19 절 후반부 구절을 통해, 하박국의 찬양이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 수금에 맞추어 불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